

함께 나누며 더불어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	 가정통신 <small>가정통신원</small>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69
http://www.jj-osong.ms.kr		063) 250-4301
제목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처요령	

학부모님께

우리가 SNS에 무심코 올리는 모함, 추측, 허위사실이나 대화창에서 흔히 하는 욕설, 공격 등이 사이버폭력에 해당됨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 메신저 프로필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
 - 단톡방에서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학생들이 쉽게 하는 위의 행동들이 모두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파 가능성"으로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쉽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험담에 동조하진 않으므로 외부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자녀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수칙 10계명**

1.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준다.
2.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3. 자녀와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한다.
4.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혹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5. 컴퓨터는 거실에 두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정해놓는다.
6.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7.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과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서비스를 설치한다.
 - ※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 - 컴퓨터: (greeninet.or.kr) / 스마트폰: 스마트보안관(스마트보안관.kr)
 - ※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서비스 - 모바일 가디언: <http://www.mguardian.co.kr>
8.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한다.
9. 사이버 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조력 기관을 알아둔다.
10.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치요령**

1. 사이버폭력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2. 자녀가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시킨다.
3. 피해를 당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준다.
4.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한다.
5.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
6.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7. 사이버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한다.
8.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전체 처리과정을 확인한다.
9. 지속적으로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관찰하고 자주 대화를 나눈다.
10. 피해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부모도 함께 참여한다.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관

1.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 * 위센터(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or.kr
-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 국번없이 1388
- *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 국번없이 117

2. 민원 및 상담기관

-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www.jikim.net/sos / 1588-9128
-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www.mogef.go.kr / 국번없이 1366
-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www.iapc.or.kr / 1599-0075
- * 청소년전화 1388.kyci.or.kr / 국번없이 1388
- *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가상공간은 익명성과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오해를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수도 있어 현실 공간에 비해 오히려 더욱 예절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의 SNS사용을 점검해 주시고 소중한 자녀들이 다른 사람 뿐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 7. 19.

전 주 오 송 중 학 교 장 [관인생략]